

건강한 속사람 Ⅲ.

겉사람의 상태를 보면 속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1. 이분법적인 사고의 문제점

[창세기 2:7]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은 인간을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 그리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인간이 되게하셨다. 땅의 흙으로 인간이 지어졌지만,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들어간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이 구절은 인간의 본연의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여겨지는데, 인간을 지으신 재료가 이 땅의 흙이란 사실은 놀랍다. 흙으로 지어졌지만 인간은 단순한 흙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다. 어디서나 쉽게 얻을 수 있는 땅의 흙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의미있는 존재가 된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다.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 의미가 발견될 때이다. 인간은 그에 대한 대표적인 예이다.

아무리 중요한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도 없다. 이 관점은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중요한 세계관을 반영한다. 오늘 신앙의 현실은 이 땅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것의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

(1) 인간의 관점 - '세상' 의 의미

[요한1서 12:16]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않은 모든 것을 '세상' 으로 정의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은 모든 것은, 인간의 관점으로 보게된다. 인간의 관점이란 '육체의 욕망,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이다.

하나님의 관점을 떠난 인간의 눈은 '육체' 이다. '육체' 는 언제나 욕망이란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본다. 그래서 육체는 언제나 '세상 살림에 대한 업적과 그로 인한 자랑' 에 초점을 둔다. 바로 이것이 '세상' 의 기준이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와같은 세상의 기준에 중심을 둔 '이분법적' 시각에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땅을 해석하지 않는다. 철저히 세상의 기준으로 이 땅을 해석한다. 하나님의 관점을 떠난 육체의 눈은, 이 땅을 욕망의 실현장으로 해석한다.

(2) 육체가 된 이유

[창세기 3:19]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낟알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육체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호흡이 떠난 존재를 말한다. 동물과 다를 것이 없다. 솔로몬의 전도서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기록한다.

[전도사 3:19-20]

19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 같다. 같은 운명이 둘 다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가 죽듯이 다른 하나도 죽는다. 둘 다 숨을 쉬지 않고는 못 사니, 사람이라고 해서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헛되다.

20 둘 다 같은 곳으로 간다. 모두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죄를 지은 인간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온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인간의 정체성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는, 흙으로 대변되는 이 땅의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솔로몬은 짐승과 인간이 다를바가 없다고 말한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한다. 이 관점이 기독교 세계관에서 바라본 세상에 대한 정의이다.

2. 전인적 치유의 첫 관점은 창조관점에 입각한 기독교 세계관의 회복에 있다.

(1) 땅과 세상에 대한 인식

하나님은 죄악된 땅을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죄로 오염된 이 땅이 원래는 하나님의 호흡이 존재하는 의미있는 땅이었음을 알려주셨다.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16절]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다고 기록한다. 또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

기독교 세계관의 회복이란, 땅에 대한 올바른 관점의 회복을 말한다. 죄로 타락한 이 땅은 하나님의 뜻과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회복' 되어야 할 영역으로 보는 것이다. 저주로 묶여있던 이 땅이 다시 의미있는 땅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성도들은 이 땅을 하늘과 분리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늘과 하나라는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

[에베소서 1:10]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2) 궁극적인 땅의 회복 - 인간

궁극적인 땅의 회복은 무엇인가? 흙으로 지어진 인간의 회복이다. 인간의 타락은 실제로 이 땅을 병들게 했다. 철저하게 이 땅을 하늘과 분리된 곳이 되게 한 주범이 바로 인간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땅의 회복이란 인간의 회복을 말하며, 인간이 회복될 때 이 땅은 다시 하늘과 하나가 된다.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온전한 회복이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한다.

(3)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겉사람은 속사람의 반영이다. 속사람과 겉사람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겉사람의 모든 것은, 속사람의 됨됨이를 반영한다. 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생각과 행동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마태복음 7:16-18]

16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마찬가지이다. 건강한 속사람은 겉사람의 영역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난다. 정서적 측면 (생각, 이성, 감정 등)과 육체적인 측면 모두가 건강함으로 나타난다. 속사람이 건강하다고 하면서,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잘못될 리 없다. 그러므로 내 삶의 궁극적인 변화는 속사람의 변화로부터 이루어진다. 어떤 속사람의 영역을 변화시켜야 하는가? 간단하다. 삶에 나타난 겉사람의 열매를 보고, 연약하고 부족한 영역을 건강하게 치료해야 한다.

3. 풀어내야 할 영역

- (1) 눈에 보이는 땅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 속사람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 (2) 건강한 속사람이란, 모든 문제를 환경과 상황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다.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 (3)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영, 혼, 육 모두) 정확한 진단과 그에 맞는 경작이 필요하다.
- (4)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 풀어내야 할 영역이 많다.

[마태복음 16:19]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 여기서 발견되는 놀라운 영적원리를 보라. 하늘이 풀리는 원리는,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있다. 오늘날 성도들이 가져야 할 확신은 하늘에 대한 확신이다. 그 확신속에서 이 땅에 집중해야 한다. 하늘은 변함이 없다. 변함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이 땅이다. 하늘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땅에 집중한다.

내 자신, 내가 속한 영역에 대한 자세가 변하는 것이다. 추상적인 삶이 아니다. 구체적이다. 그리고 실제적이다. 이제 내 안에 있었던 모든 묶임을 풀어내는 일들을 해야한다. 잘못된 일들은 묶어내며, 묶여있던 좋은 영역이 적극적으로 풀려야 한다.

‘풀림’에 집중해야 할 때, 회복에 초점을 둔 사람은 묶임보다는 풀림에 집중한다. 풀림의 키워드는 ‘나눔, 흘려보냄, 세움, 회복, 자유, 기쁨 등’이다. 이것이 하늘과 땅을 분리시키지 않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다.

(5) 온전한 상태를 살아내기

생각과 감정, 육체, 영성의 모든 면에서 가장 온전한 상태를 생각하며, 그 기준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온전한 모습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허락하신 온전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